

치 사

**삼라만상(森羅萬象) 두두물물(頭頭物物)이
새 기운으로 대지의 생명을 일깨우는
때에 대전-충청 지역의 대중들이
모여 포교결집대회를 개최하는 것을
진심으로 치하합니다.**

**종단과 한국불교의 가장 중요한
과제는 포교입니다. 포교는 부처님
법을 바로 알려 이웃을 행복과 안락**

**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를 맑고
아름답게 하는 믿음과 희망의 등불이라
할 수 있습니다. 이에 저는 제33대
총무원을 출범시키면서 교육과 포교로
불교중흥을 이끌겠다고 발원을 하였
습니다.**

**이는 현 총무원의 지향임은 물론
본종 출범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.**

**그러나 그간 포교가 중심이고 희망
이라고 하면서도 종단을 돌이켜
볼 때 포교에 큰 힘을 기울이지 못한 점
또한 없지 않습니다.**

이러한 마당에 33대 총무원 출범과 함께 2009년 11월 잠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종단출범 이후 처음으로 포교단체, 신도단체, 신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1만인 포교결집대회가 봉행되었습니다.

그후 2010년은 포교역량조직화의 해로 선정하여, 교구본사 및 지역을 중심으로 포교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포교원의 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, 그 첫 시작을 이곳에서 열게 된 것을 깊이 치하합니다.

**부처님 말씀도 여러 스님들이 모여
서로 그 가르침을 공유하고 결집되었을
때 경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
것입니다.**

**포교는 사부대중이 모여 한 마음으로
결집될 때 그 역량들이 모여서 구체
적인 모습을 갖추기 마련입니다.**

**그러면 거기에는 힘이 실리고 신뢰가
형성되며, 누구나 받들고 따라야
하는 당위성이 확보됩니다. 그래서
포교결집은 중요한 것입니다. 더욱이**

**대중들이 운집하여 포교의 앞길을
밝히는 것은 서로를 신명나게 하고
각자의 마음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.
그로 인하여 부처님 말씀은 이 땅에
널리 전하여 질 것입니다.**

**우리는 오늘 포교결집대회를 통해
포교에 대한 신념을 굳건히 다지고
일로매진하겠다는 결정심과 분발심을
세워야 할 것입니다. 포교를 위해
큰 원력을 세우고 그 역량을 모아
한국불교의 앞길을 환히 열어가야 할
것입니다.**

그런 의미에서 이 대전-충청권 포교결집대회는 이제 지역별 포교결집의 시작을 열고, 종국에는 전국적으로 그 기운을 전파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

하여 2010년 지역별 포교결집대회를 주최한 포교원과 대전-충청 포교결집대회를 주관한 교구본사주지스님께 더 없는 감사의 말씀을 표하며, 이 대회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모두에게 종단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치하드립니다.

**부디 대전-충청권 포교결집대회의
서원이 원만히 회향되고, 전국으로
펼쳐져 이 땅 불국토 건설의 초석이
되기를 기원합니다.
감사합니다.**

**불기 2554년 4월 3일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**